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소모기간 부담스러워”

“과도한 시험비용으로 인해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연매출 10억원에 종업원 10인을 고용하고 있는 전라도의 도로 제조업체 사장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3분의 2는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인증 취득을 위한 소모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의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2019년도 평균 연간 총 비용은 2,180만원으로 조사됐고, 63.7%

평균 소요기간 5.5개월... “비용 지원·서류 간소화 시급”

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인증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5.5개월로 조사됐으며,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취득 과정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는 54.7%, ‘비용 및 소모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1+2순위 기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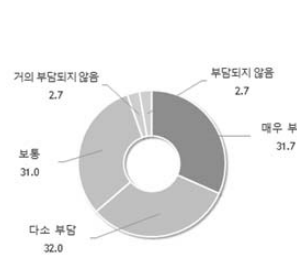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 있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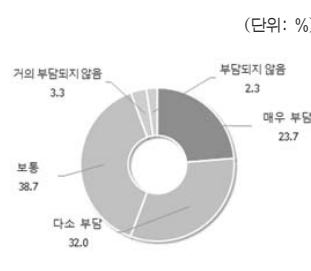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했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인증 취득 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인증 취득 시 소모기간에 대한 부담 정도〉



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육조 중소기업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모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

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긴급재난 지원금 전 영업점 신청접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8일부터 전북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북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미보유자는 세대주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방문 영업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영업점 혼잡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18일에는 출생연도 끝 자리가 1과 6, 19일에는 2와 7, 20일에는 3과 8, 21일에는 4와 9, 22일에는 5와 0인 고객만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항토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북중기청, ‘청년 글로벌 마케터’ 신청·접수
최대 2명, 1인당 마케팅 430만원·멘토 120만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근영)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 참여기업을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수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2019년 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청년글로벌마케터 채용요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돼 재직중인 경우 채용일 현재 만 19~34세로 TOEIC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보유자이어야 한다.

특히 무역학,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 전공자,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지자, GTEP 등 무역인력양성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는 기업의 인력채용 시 우대한다.

또한 기업 선정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과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에서 인건비·4대보험·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명 이내에서 희망시 인력 알선은 물론, 수출교육, 멘토링, 해외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한다. 3주 동안 이력서 교육 후 1인당 430만원의 마케팅 및 판매촉진 활동비용은 물론,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멘토링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업 및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한다.

전북중기청은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까지 2회 이상 총 200명(회당 100명)의 청년글로벌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할 예정이며, 1차 기업모집후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과정을 수료한 청년글로벌마케터는 입국제한이 풀린 교역국가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해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남우 청장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비와 같은 소식이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5월 29일까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LX, ‘착한 임대료’ 이달부터 4개월간 50%까지 확대 감면

코로나19 고동분담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이달부터 착한 임대료를 통 크게 확대한다.

LX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20%와 30%를 감면해 주던 기존 임대료를 이달부터 8월까지 35%와 50%로 각각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LX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임차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각각 20%와 30%의 임대료를 감면해 적용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달 5월부터 4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를 35%와 50%로 각각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면에서 제외되었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차인까지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20%의 임대료 감면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했다.

LX의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며, 8월 이후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매출감소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사의 임대료 인하 노력이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임차인의 경영상 애로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운영중단 되었던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운영재개와 함께 순차적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완전 짬이야’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가정의 달 맞아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운영 재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운영중단 되었던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운영재개와 함께 순차적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정의 달 특강 ‘가족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완전 짬이야!’는 전국 11개 금융교육센터에서 실시되며, 개학 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N폴린(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일일 은행원이 되어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업무와 핀테크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진행된다.

18일에는 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 자녀 10여명을 초청해 ‘가족과 함께하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금융지식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청소년 맞춤형 금융컨텐츠 제공과 함께 코로나 19 예방

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소외계층 등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에 선정된 바 있다.

금융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youthedu.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재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16일 ‘2020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험전형’을 대전광역시시에 있는 KT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은 당초 지난 3월 1일로 예정했던 시험전형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4월 4일과 5월 16일로 두 차례 연기 된 끝에 두달 반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시험전형에서 대전 서구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강화된 자체 방역 매뉴얼을 수립해 흡기 모를 감염 발생에 대비했다.

응시생은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유증상 여부는 물론, 이대원 방문이력 등을 사전신고 받아 자가격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실시했다.

또한 응시자 간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시험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감독위원과 진행요원 역시, 방호복과 니트릴 장갑, 마스크를 착용해 내부직원으로 인한 응시생 감염 예방을 만전



을 기했다.

이번 시험전형은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신재생 분야 검사방법 연구와 검사기준 개발 등 경력직 4개 직무와 신입직원 3개 직군(경영관리, 기술, 연구)을 대상으로 시행돼, 전국 699명이 응시했다. 공사는 이달 30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실시하는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14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성완 사장은 “수험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랜만에 실시된 이번 시험전형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순창 농어촌공, 경영위기 농가에 17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기수)에서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부채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농지 등을 감정가격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다시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지원대상자는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인 농지 및 축사 등의 농업용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어촌공사 순창지사(☎063-650-7031)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국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농진청·산림청,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자체 농림·산림부서 등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농림지(농경·산림지) 대상 돌발해충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돌발병해충 예방·방제 협의회를 구성, 해마다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방산림청(관리소)·지자체에서 실시한 지역별 돌발해충 월동란(겨울을 난 해충의 알) 조사를 바탕으로 월동란 부화

시기를 예측해 방제효과가 높은 시기를 결정하고 방제구역, 방제방법 등을 설정했다.

이번 협업방제는 농경지(1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2구역), 집단발생산림지역(3구역)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1구역으로 분류된 농경지의 경우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 동력분무기, 고성능분무기(SS기) 등을 활용한 기계방제를 실시한다.

지방산림청(관리소)과 지자체 산림부서가 주축이 되는 2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과 3구역 집단발생산림지 방제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산림항

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방제 범위가 넓은 광역방제기 등으로 약제를 뿌릴 때 주변 작물에 비산(약제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해충 전용 약제를 활용하고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방제할 계획이다.

약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사용, 월동란 직접 제거, 유인트랩·포획기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정충성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이번 돌발해충 협업방제 기간 중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고,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